

찬란한 옥과같이 갈리고 갈려
단단한 쇠와같이 닳히고 닳려
영도에 날고뛰는 용마보다도
현해를 구비치는 고래보다도
우리는 지혜롭고 더욱 날래세
새로운 우리나라 기념탑으로
크나큰 이름에는 경남중고교



발행·편집인: 안강태
발행처: 경남중고등학교동창회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 4가 52-3 골든 O/T 411호
Tel: (051)245-7551~3 · FAX: 245-7550
인쇄처: (주)중앙인쇄
Tel: (051)636-9477 · FAX: 636-9478

조길우 '전국 첫 5선 광역의원'(부산) · 박맹우 '2연속 광역단체장'(울산) 영광

용마7명 지방선거서 당선



5·31지방선거에서 열전을 치른 끝에 당선된 영광의 용마들. 왼쪽에서부터 조길우·이종철·이인준·박맹우·하영제·박성중·조정화 동문

5·31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조길우 동문이 '전국 첫 5선 광역시의원', 박맹우 동문이 '2연속 광역시장'의 위업을 세우는 등 용마 7명이 광역단체장과 광역시의원, 기초단체장 (한나라당 6명·무소속1명)에 당선, 모교와 동창회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내외 용마가족에게 자긍심을 드높여줬다. 영광을 안은 주인공은 다음과 같다.

광역단체장

박맹우: 박맹우 동문(25회·울산광역시)은 한나라당 울산광역시 후보로 출마, 26만1,361표를 얻어 '2연속 광역시장'의 감격을 누렸다(관련기사는 오른쪽 박스아래).

광역시의원

조길우: 본부 용마장학회 이사인 조길우 동문(16회·부산광역시)은 한나라당 부산광역시의원(동래1) 후보로 출마, 무투표 당선됨에 따라 '전국 첫 5선 광역시의원'의 영광을 안았다(관련기사는 오른쪽 박스 위).

기초단체장

이종철: 이종철 동문(16회·전 부산시의회 보사회경위원장)은

이종철(16회)
부산 남구청장
이인준(22회)
부산 중구청장
하영제(27회)
경남 남해군수
박성중(30회)
서울 서초구청장
조정화(37회)
부산 사하구청장

한나라당 부산 남구청장 후보로 출마, 7만8,173표를 얻어 당선됐다. 이 동문은 부산대 회공학과를 졸업했고 한나라당 부산 남구지구당 부위원장을 거쳐 지난 1998년 부산광역시의회에 당선된 이래 2선을 기록했다.

이인준: 이인준 동문(22회·부산 중구청장)은 부산 중구청장에 무소속으로 출마, 1만1,713표를 얻어 당선, '무소속3선' 관록을 쌓았다.

이 동문은 지난 1991년 출범한 부산광역시의회 시의원에 당선된 이래 2선을 했다.

하영제: 하영제 동문(27회·남

해군수)은 한나라당 남해군수 후보로 출마, 1만7,858표를 얻어 재선의 기록을 세웠다.

하 동문은 서울대 농대·서울대 행정대학원(석사)·동국대 대학원(행정학 박사)을 졸업한 후 행정고시(25회)에 합격했고 경남 진주시 부시장을 거쳐 지난 200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남해군수에 도전, 당선됐다.

박성중: 박성중 동문(30회·서울 서초구청 부구청장)은 한나라당 서울 서초구청장 후보로 출마, 12만1,297표를 얻어 당선됐다.

박 동문은 성균관대 행정학과와 서울대 대학원(행정학 석사), 성균관대 대학원(행정학 박사)을 졸업한 후 행정고시(23회)에 합격했고 서울 서초구청 부구청장 등을 역임했다.

조정화: 조정화 동문(37회·전국회의원 보좌관)은 한나라당 부산 사하구청장 후보로 출마, 8만2,878표를 얻어 당선, 기초단체장의 첫걸음을 걷게 되었다.

부산외국어대 법학과를 졸업한 조 동문은 선배인 연호성 국회의원(28회·한나라당 부산 사하을지구당 위원장)의 보좌관을 맡아 의정수업을 받아왔다.

제 1 회

조길우(16회) 부산시의회 2선의장 관록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을 두 번째 맡고 있는 조길우 동문(16회)은 이번 5.31지방선거 결과 '전국 첫 5선 광역시의원'의 영광을 안아 전국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부산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조 동문은 지난 1991년 7월 8일 출범한 부산시의회에 진출한 이래 15년간 의정활동을 펴면서 건설교통위원장과 부의장, 의장등을 거치며 관록을 쌓았다.

이번 5·31 선거에서는 한나라당 부산시의원(동래1) 후보로 다섯 번째 도전, 무투표 당선됐다. 이로써 조 동문에게는 '동창회 사상 첫 광역의회 2선의장'에 이어 '전국 첫 5선 광역시의원'이라는 자랑거리가 따라다니게 됐다.

특히 조 동문은 의정활동 중 불어닥친 IMF한파를 극복하기 위해 '부산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실업대책위원회'를 운영해 큰 성과를 거뒀고, 월드컵 축구 본선 조추첨 행사 부산유지와 부산신항 및 삼성자동차 건설 등 현안타결에 선봉장 역할을 했다. 솔직담백한 조 동문은 동기회 회장과 본부동창회 부회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본부 용마장학회 이사를 맡고 있는 등 동창회 발전에 헌신하고 있다. 조이호(9회·택시사업)·조봉국 동문(22회·변호사)이 각각 형제다.

박맹우(25회) 24년공직 지역행정 베테랑

5·31지방선거 결과 울산광역시장에 당선돼 '2연속 광역단체장' 영광을 안은 박맹우 동문(25회)은 경남도에서 공직자 생활을 시작한 이래 4년간 울산시장경력을 합쳐 모두 24년 동안 지방행정에 헌신해 이 분야의 베테랑으로 손꼽히고 있다.

국민대 행정학과와 경남대 대학원(행정학 석사), 동의대 대학원(행정학 박사)을 졸업한 박 동문은 행정고시(25회)에 합격한 이래 내무부 종합상황실장·협안군수·울산시 기획실장·울산광역시 내무국장·울산동구 부구청장·울산광역시 건설교통국장 등을 역임해 행정실무 구석구석에서부터 밑바닥까지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훤히 파악하고 있어 '행정전문가'로 불려지고 있다.

공직생활 중 '한건주의'식 보고형태와 복지부동, 고압적 대민 자세 등을 없애는 데 주력해 실효를 거뒀고, 아랫사람들에게 남다른 애착과 관심을 보여 신망과 존경을 받았다. 특히 매사를 알뜰하게 검토·처리하고 특유의 친화력과 담백한 리더십, 과감한 추진력 등을 바탕으로 하는 조직장악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동창회 활성화와 동문·가족 상호 간 유대 증진에 앞장서 성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제 2 회

(주) 씨티디벨로핑

부산시 정비업체 등록 제27호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주)씨티디벨로핑이 함께 합니다.

사업추진

재개발사업 초읍 2구역·문현 5구역·화명 1구역·재송 2구역

재건축사업 덕천 2구역·반여 3구역·대연 2구역·재송 5구역

(주) 씨티디벨로핑
대표이사 **윤성국** (33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 4동 1060-17
Tel. (051)802-8385(대표) | Fax. (051)802-8386

So... Pleasure

함께하는 풍요로운 미래
당신의 행복한 미래를 생각합니다.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가치창조.
언제나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주)씨티디벨로핑은 도전·정직·성실을 바탕으로
행복하고 쾌적한 주거문화를 만들기 위해
언제나 앞장서고 있습니다.

덕천2 재건축

반여3 재건축

문현5 재개발

초읍2 재개발

시·평

동문관계는 서로 모르는 처음 만난 사람 사이에도 쉽게 동질감을 느끼게 하며 상대방의 성격이나 배경을 따지기 전에 오래전부터 가깝게 지내던 사이로 만들어준다.

이 좋은 모임이 유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동문 간에 예절을 잘 지켜야 하고, 동창회를 서로 베품의 장소로 이용하고, 또한 서로 평등한 마음으로 동문 모두가 이질감을 느끼지 않고 모임 수 있는 놀이터로서의 동창회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동문 간의 예절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동창회 모임은 나이, 직업, 경제력을 떠나 서로가 인정하는 평등화된 마음 속에서 지켜져야 할 예우 관계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같은 동년배 간에도 너무 무례하지 않는 행동을 하도록 항상 조심하며, 후배의 입장에서는 선배들이 너무 세대차이가 나서 재미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모임이 있을 때에는 나이든분의 경험담을 듣게 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선배들은 후배들이 때때로 너무 벼룩었다고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세대의 다른 생각을 가진 후배들의 입장을 잘 이해해야 한다.

후배들 앞에서 너무 지루하게 말을 일방통행으로 많이 하지 않도록 순간순간

자제해 보는 여유를 갖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동문 간의 인간관계는 나이, 직업, 경제력 등에 따른 수직적 상하관계가 아니고 수평적 예우관계라고 이해할 때 가능하다.

일전에 어느 친구에게서 들은 이야기는 동창회이니까 있을 수 있는 것이지만 예절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한국에서 동창회에 갔더니 70대 선배가 60대 후배 보고 반갑다고 하는 제스처가 "야, 너 참 오래간만이다." 하더니 머리 뒷부분을 손바닥으로 몇 번 때리더라는 것이다. 그 후배는 선배 앞에서는 "예예" 하면서 끄떡 못하더라는 것.

그렇지만 주변 사람들이 볼 때에는 너무 민망스러웠고, 그 후배는 다시는 동창회에 안 나오든지 또는 그 선배가 나오는 자리를 기피할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었다는 이야기. 동문 간의 모임은 서로 배

우는 모임으로 생각해야 한다.

혼자만의 생각에 빠져 어떤 형태의 이득이 돌아올 것으로 가정하고 접근하면 집중판구 헛되이 시간을 낭비한 꼴이 되고 동창회에 가보니 별 볼일 없더라는 등 기대에 못 미치는 데 대한 서운함을 느낄 수도 있다. 꼭 어떠한 목적을 두지 않더라도 모임에 참석하다 보면 서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기도 하고, 서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끼리는 비즈니스에 도움을 주든지 또는 같이 비즈니스를 할 기회도 잡게 될 것이다.

동창회에서 서로 베풀다는 것은 조그마한 일에도 남이 알아서 하니 나는 가만히 있다가 끼어들면 된다는 생각, 또는 남과 비교하여 이 정도면 되겠다는 것에서 벗어나 조금이라도 더 모임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방향으로 생각 및 행동하는 사람은



이 서 희 제22회 · 미국 남가주지역동창회 회장

‘동창회의 길’을 다시 생각하자

모든 동문의 호응을 받고 있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람으로 존경받게 된다. 열 개를 베풀면 일반적으로 열 개를 더 한다고 생각될 때 세 개를 더 얹어 주면 받는 이들에게 더 많은 즐거움을 주게 되며 주는 즐거움도 반씩할 것이다.

동문 간의 마음의 평등화는 모임을 더욱 활기 있게 만들 것이다. 경제력 등에서 남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존경만 바라다면 자신도 모르게 동문들에게서 소외된 기분을 느끼게 될 것이다. 성공적인 경제력 등은 부러움의 대상은 될 지언정 존경의 대상은 아니기 때문이다.

동문 간의 공동놀이터인 동창회는 어느 누구의 독점물이 아니고 나누어 즐기는 모임이다. 앞에 나서지 않으나 숨어서 조용히 도와주는 고마운 분들이 많은 동문회는 뿌리가 깊이 내려 단단한 기반 위에서 더욱 활성화될 것이고,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면서 이것저것 옳다 그르다는 요구사항만 많고 떠들썩한 사람이 많으면 모임 자체에 균열이 생길 것이 자명하다. 그러나 모든 동문의 모임인 동창회는 누가 이익을 주고 누가 불이익을 주는가에 따라 참석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동문이 공동체로 모이는 곳이므로 서로가 이해와 설득으로 포용력 있게 잘 이끌어져야 할 것이다.

동창회는 수평적 예우관계에 기반을 두고 서로 베풀다는 마음으로 접근할 때 공동의 놀이터로 유지, 발전할 것이다.

지문위원 이 명(11회) · 부회장 임태영(40회) · 사무국장 허홍욱(19회) 선임

본부동창회 집행부 기능 보강

고문 · 회장단 회의서 의결

지난 4월25일 본부동창회는 부산 동구 범일동 대어(일식전문점)에서 안강태 회장(11회 · 대선조선 대표이사)주재로 올해 두 번째 회장단회의를 열어 신입 지문위원 · 부회장 각 1명과 사무국장을 선임하는 등 집행부 기능을 보강했고 모교 발전과 동창회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오후 6시30분 열린 회의는 고문 지문위원 회장단 감사 특별 초청동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

요업 무와 행사일정을 보고받았고 김병수 전 사무국장(22회) 후임으로 안 회장이 제청한 허홍욱 동문(19회 · 부산대 사범대 교수 · 경남고 학교운영위원장)을 신입 사무국장에 발탁하기로 했다.

또 지문위원에 이 명 동문(11회 회장 · 관용아동교육복지사업후원회 회장)을, 부회장에 임태영 동문(40회 회장 · 신우회계법인 공인회계사)을 각각 새로 선임했다.

특히 회의는 모교 진화지도 지원과 야구부 후원을 위해 가칭 '모교발전추진위원회'를 구성,

본부 사무국장에 허홍욱 부산대 교수

본부동창회 신입 사무국장에 부산대 사범대 교수인 허홍욱 동문(19회 · 경남고 학교운영위원장 · 사진)이 발탁됐다.

안강태 본부회장(11회 · 대선조선 대표이사)은 지난 4월25일 고문 지문위원 부회장 감사 등이 연석한 올해 두 번째 회장단회의를 주재하고 허 동문을 신입 사무국장으로 제청, 만장일치의 동의를 받아 선임했다.

구체적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날 김선동 부산시교육위원



서울대 사범대 생물학과를 졸업한 허 동문은 부산대 교수요원으로 임명된 이래 사범대 학장과 대학원장 등을 역임했고, 일본 고토대 대학원 농학부에서 농학박사학위를 받았다. 동기회 회장과 본부 이사를 역임한 허 동문은 기별대학 야구대회 사상 첫 동기회 야구

팀의 '영원한 투수'와 '명감독' 명예를 동시에 지키고 있다.

선이 굵고 소탈한 성격인 허 동문은 동문골퍼들의 친목회인 용마회 총무도 다년간 맡고 있으며, 조직 관리력과 추진력이 강하고 매사를 긍정적 · 합리적으로 처리한다는 평가를 주위로부터 받고 있다.

이번 본부 사무국장 발탁 배경도 이 같은 점들이 인정돼 앞으로 동창회 조직강화 및 활성화와 용마가족 유대 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별초청됐다.

(10회 회장)과 박성철(29회) · 윤인태(30회)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젓소부인’ 탄생 유래

어떤 부부가 살았다(同居同樂...). 들은 남자와 여자에게 재미있게 살았다(存裸開奢羅保世). 그러나 어느 날 드디어 남편의 힘이 쇠지고, 부인은 힘이 넘쳐 힘의 판도가 깨졌다(權不捨年!!).

그래서 재미 붙인 쪽은 매일 보채고 밀린 쪽은 기진맥진하였다(嗚呼 通哉! 百藥無效?).

매일 아침 점심 저녁 끼니 때우듯 한 쪽의 일방적 공세에 드디어 다른 한쪽이 손을 들었고(大馬橫死), 비통한 목소리로 외쳤다. "젓소, 부인!"하고 백기를 들었다.



(‘젓소부인’ 탄생?). 이 말을 전해 들은 영화감독이 심혈을 쏟아 만든 에로(愛勞?)영화가 바로 <젓소부인>이라고 한다.

‘어삼보사호오’라고?

어느 순진한(?) 처녀가 군에 입대한 애인을 면회하러 갔다. 위병소에서 주는 면회신청서

웃고삼시다

를 작성하다가 보니 ‘관계’란이 나오길래 ‘만난 지 한 달째 되는 날’이라고 적어냈다.

면회신청서를 읽어보던 병사가 화를 내다가 신청서를 돌려주면서 “아가씨, 지금 누굴 놀리는 겁니까? ‘관계’란을 좀 똑똑히 쓰세요!”라고 일러주었다.

당황한 아가씨가 망설이다가 ‘할 수 없지’ 하며 관계란에 ‘어삼보사호오’라고 고쳐 써냈다. 병사가 다시 “아니, 아실 만한

분이 왜 자주 이러세요. 정말 끝까지 장난치실 겁니까?”라고 또 화를 냈다. 신청서를 다시 받아든 아가씨는 ‘에라 모르겠다’ 하며 ‘어삼보사호오’를 자세히 풀어 써냈다. 이를 받아들 병사는 “무슨 이런 사연이...”하며 놀란 표정으로 꺾꺾 혀를 찼다.

<힌트1> ‘어삼보사호오’ 중 ‘어·보·호’는 장소이고, ‘삼·사·오’는 숫자임.

<힌트2> ‘어’는 나그네가 하룻밤 묵고 가는 곳이고, ‘보’는 요즘 들판에서 한창 푸릇푸릇 자라고 있는데, 열매는 한여름 무렵 타작하여 수확함. 우리 가곡으로도 불려지고 있음.

<힌트3> ‘호’는 ‘여’보다 상위 클래스로 등급은 ‘무궁화’ 숫자로 표시함. 최고급에는 숙박시설 · 커피숍 · 레스토랑 · 기념품센터 · 헬스클럽 · 사우나탕 · 수영장 · 카지노 · 문화공간 등을 갖추고 있음.

자료 : ‘後羅而禮記’에서 발췌.

“그리운 부산항에 돌아왔어요...” 홈커밍데이 만발

‘봄의 축제’ 홈커밍데이행사가 올해도 용마가족들의 영원한 마음의 고향 부산항에서 추억어린 정겨운 파도 소리와 뱃고동소리에 힘싸인 채 펼쳐졌다.

주인공은 졸업 40돌 맞이 제20회동기회를 비롯해 30들의 제30회, 20들의 제40회동기회, 모교와 해운대 일

원에서 펼쳐진 홈커밍데이 행사는 아름다운 만남이 수놓은 신선한 감동으로 열정의 꽃밭을 이뤘다.

한편 제10회동기회는 오는 가을에 졸업50돌 맞이 행사를 치를 예정이고 제1회동기회 60돌 행사 일정은 미정이다. 제20·30·40회 동기회 축제 분위기를 살펴본다.

‘우정의 꽃밭’ 수놓은 앨범 등 방영하자 환성물결 부인들 노래·장기자랑에 동문들 고개 숙여

제 20회 동기회

제20회동기회는 지난 4월22일 오후 6시 해운대 조선웨스턴비치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졸업 4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 축제의 막을 열었다.

무대 앞 대형 스크린에 동기생들이 제공한 사진들과 추억 어린 앨범들이 상영되자 일제히 박수 갈채와 환성이 터졌다.

흥분이 가라앉자 제1부 기념식이 진행됐다.

노기태 동기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안강태본부 회장 격려사·이맹기 서울 회장 회고사·유공자 표창·모교발전기금(경남중·고 각 300만 원)전달·축배·교가제창 등 순으로 진행됐다(사회:장춘식 총무).

안강태 본부회장(11회·대전조선 대표이사)은 우성하·장춘식 동문에게 공로패와 순금 배지를 수여, 등장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했다. 경남중 교장 감사패는 김종민, 경남중 교장 감사패는 장병호동문이 각각 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국내외에서 200여 명(부인 포함)이 참석했다. 특



제20회 동문들이 졸업40주년 홈커밍데이축제 제1부 기념식이 끝나자 한자리에 모여 포즈를 취했다(4월22일 저녁 해운대 조선웨스턴비치호텔 그랜드볼룸)

히 미국에서 온 박병철·문광진 동문과 현대의 노래 ‘봄 좀 주소’로 유명한 포크송의 대부 현대수 동문이 아름다운 러시아 출신 부

인과 함께 참석하여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한편 집행부는 앞서 지난 4월14일 오후 6시30분 서면 롯데호텔

베네치아룸에서 신진숙 선생님을 비롯한 열다섯 분의 은사를 모시고 사은회를 베풀었다.

제2부 여흥 한마당은 부인들이 동문들보다도 더 다채로운 장기를 보여줘 열광의 도가니로 돌아왔다. 경기민요 중 ‘노랫가락’을 멋들어지게 열창한 윤병규 등은 부인과 걸쭉한 아랫도리(?) 이야기를 펼친 유영걸 동문 부인이 객석을 사로잡았다. 공식 행사를 마친 일행은 뒤뜰이 코너에서 다시 열정을 불태워 해운대의 밤은 불야성(不夜城)을 방불케 했다.

축제 다음날인 23일에는 추준석 동문(부산형민공사 사장)이 베푼 오찬을 겸한 단합회를 즐긴 후 오후 2시 석별의 정을 나눴다.

가수 유열 열창·동문 딸 고전무용에 넋 잃어 곰장어구이·회국수 아릿한 맛따라 추억여행

제 30회 동기회

제30회동기회는 지난 4월29일 오후 2시쯤부터 모교(경고)에 등교(?)하는 것을 시작으로 1박2일에 걸친 졸업3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행사의 막을 열었다.

학창시절 3학년 자신의 반으로 찾아가 담임선생님께 아내와 가족들을 소개하고 추억어린 시간들을 케넛고, 도시락으로 점심식사를 했다.

오후 4시 학교체육관에서 ‘전체 조회’로 열린 제1부 기념식은 국내외 동문·가족, 은사, 본부동창회 임원 등 4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파르를 올렸다.

개회선언(최기훈)에 이어 황철민 동기회장 인사말·모교 교장 환영사·본부 동창회장 격려사가 있었고, 유공자 표창, 모교발전기금 전달(경남중 300·경남고 400만 원), 교가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사회:노치훈 총무).

안강태 본부회장(11회·대전조선 대표이사)은 유공자 표창에서 김백수·양홍식 동문에게 공로패를, 우흥제·정진국 동문에게 순금 배지를 각각 수여했다. 경남고 교장 감사패는 김진홍·최병철 동문이 받았다.

이어 학창시절 학생회장을 역임했던 최기훈(현호사) 동문이 내빈에게 감사의 인사말을 한 후 교가제창을 선창하는 등 열정을 토했다.



제30회 동문들이 졸업30돌 기념 홈커밍데이행사를 맞아 모교에서 은사님들을 모신 가운데 기념촬영을 했다(4월29일 경남고 체육관 앞)

이날 오후 6시 조선웨스턴비치 호텔에서 열린 제2부 우정의 밤은 만찬이 끝난 후 오프닝쇼와 초대 가수 유열 등이 펼친 축하공연, 가족과 함께 펼친 장기자랑 등으로 새로운 추억을 만들었다. 특히 조길래 동문의 귀염둥이

따님 은서양(초등고 3학년·리블엔젤스 단원)의 고전무용은 모두의 눈을 빼앗은 가운데 탄성과 박수갈채에 들렸다.

공식 행사가 끝난 후 추당 100여 명은 서재원 동문이 경영하는 광안리 ‘대교횡집’으로 불려가

해가 뜰 때까지 회포를 풀었다. 행사 이틀째인 30일 아침 호텔에서 아침식사를 한 일행은 크루즈를 타고 해상부어를 하면서 소문난 국제해양관광도시 부산의 아름다운 풍광을 만끽했다.

크루즈에 심취했던 일행은 자갈치로 이동해 곰장어구이로 고향의 맛을 되살렸고 할매회국수집에도 들러 아릿한 맛을 다시 느끼며 아련한 그 시절에 흠뻑 젖었다. 되돌아보면 불수록 아쉬움이 출렁거리는 만남들이었다. 그렇게 많고 많은 말들이 그 동안 다 어디에다 간직해 왔을까? 다시 헤어질 것을 생각해서인지 때때로 밀문을 달고 슬로아픈 마음을 달래는 친구들이 많았다.

하지만 오후 6시10분 서울팀이 KTX에 몸을 싣는 것을 끝으로 축제는 폐막됐다.

국내외 520여 명 참석... ‘사상최다’ 신기록 세월 뛰어 넘는 사제의 장기자랑에 사랑 쌓여

제 40회 동기회

지난 5월5일 졸업한 지 20년 만에 모교를 방문한 제40회동기회 용마가족들.

이들은 오후 3시부터 모교 경남고에서 열린 졸업20돌 기념 홈커밍데이 행사장에서 반가움에 겨워 서로 열싸안고 어깨동무를 한 채 사진을 찍어대는 것으로부터 우정을 확인했다.

버스 2대에 나눠 타고 온 서울의 동문·가족 90여 명이 모교 교정에 들어선 직후 막을 연 행사는

부산을 비롯한 국내외 동문 400여 명과 가족 등 모두 520여 명이 참석, ‘사상최다’의 신기록을 세웠다(작년 제29회가 세운 기록을 깨뜨림).

오후 4시 국산기념관에서 진행된 제1부 기념식은 임태영 동기회장의 회고사, 권명미 경고 교장 환영사, 해외출장 중인 안강태 본부동창회장을 대신한 허홍욱(19회) 사무국장 격려사, 황규형 은사 대표 축사가 있었다.

이어 유공자 표창과 본부동창회 장학금 기탁, 모교발전기금(벤치 제작 및 화단 조성비)과 야구부



제40회 동문들이 졸업 20년 만에 처음으로 모교를 방문, 홈커밍데이축제를 펼친 가운데 은사님과 가족들을 앞세우고 포즈를 취했다(5월5일 오후 경남고 체육관 앞)

지원금 전달, 교가제창 등 순으로 진행되었다(사회:옥진형). 특히 아르헨티나의 백기문 동문이 ‘성공적 축제’를 기원하며 보내온

동영상이 화제를 모았다. 유공자 표창에서 동창회장 공로패는 한수열·김상우, 순금 기념배지는 김승환·정원철, 모교교

장 감사패는 조경태·임태영·이흥기 동문이 각각 받았다.

이날 오후 6시30분 해운대 그랜드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축제 2부 우정의 밤 행사는 이흥기 서울회장 인사말과 은사님께 사은품 증정, 만찬 순으로 진행됐다.

화합한마당에서는 은사와 제자들이 한데 어울린 장기자랑이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특히 최고의 인기를 끈 ‘200만 원 상당 성형시술권(이흥기 서울회장 협찬-이미지성형외과의원 장)이 모두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축제는 김석용 동문의 선창에 따라 모두들 신발을 들고 외친 ‘후라! 경고!’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제8회 서울·부산 용마가족들이 전북 진안의 도립공원 마이산에서 활동아유회를 즐긴 후 단합회 회의장 앞 계단에서 포즈를 취했다.

제8회 경부 부부동반 마이산 아유회

돌탑 등 관광 후 산나물요리·더덕술에 우정 넘실

“야, ‘백발소년’ 친구야! 반갑다!” 제8회동기회 경부합동아유회가 지난 5월25일 전북 진안군 마이산에서 열려 근엄함도 체면도 제쳐두고 ‘동심한마당’을 연출했다.

이날 아유회는 부산에서 안종열 회장을 비롯한 35명, 서울에서 김동훈 회장을 포함해 23명 등 부부 동반 모두 58명이 모였다.

일행은 오전 11시 이곳 남부주차장에서 재회의 악수를 나누고 마이산 석탑 등을 관광하고 더덕구이 한정식으로 유명한 국태(國太)식당에서 단합회의 막을 올렸다.

오후 12시30분께 우동천 부산총무의 사회로 진행된 단합회는 안종열 부산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축배를 들었고 김동훈 서울회

장이 좌석을 돌며 술잔을 권했다.

갓가지 산나물로 차려진 오찬요리에 더덕동동주가 몇 순배 들자 당대의 한량(?)들이 일어나 노래와 장기자랑을 펼쳤다.

굿관은 오후 2시40분까지 이어졌고 오후 3시 석별의 정을 나누기 앞서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친구들아, 다시 만나자!” 서로의 아쉬움들이 멀어지는 차창에 가들거리면서 가슴에 긴 여운을 남겼다.

부산팀은 귀가길에 경남 함양 안의면 화림동 안의계곡에 들러 농월정(월암연-정자는 불타 흔적 없음) 너럭바위에 들러앉아 예나 다름없는 흐르는 계류의 들소리와 아름다운 풍광에 심취했다. 나누는 술잔 속에 정답이 떠들자 50년 친구들은 풍류객의 운치를 흥내냈다.

황혼이 지리산 기슭을 휘감을 무렵 일행은 부산으로 달렸다. 특히 미국의 구무옥 동문이 일시 귀국길에 합류해 50년 만의 해후를 뜨겁게 달랐다.

글·김재범 / 사진: 박소현

문수산의 도사

울산의 문수산 등산모임 중 백등회가 있다. 백등회는 백수들의 등산모임을 줄인 말이다.

여기 회장은 백20수(백수된지 20년)다. 회원들 중에는 백10수를 전후한 자가 수두룩하다.

나 같은 백1수는 명합도 못내밀지만, 내가 2봉 1번(막걸리 2봉에 사이다 1봉)을 만들어 대접을 잘 하니까 끼어준다. 회장은 56세에 공직에서 나와 산으로 들로 전국을 누볐다니 적어도 76세는 되리라. 회장을 따라 등산을 해보면 도대체 가는 것인지 서서 쉬는 것인지 답답할 때가 더러 있다. 그러다가 내가 탄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거나 탄 곳으로 정신을 팔고 있는 사이에 어느새 그들은 저 멀리 가 있는 것이다. 쉬는 것 같아 보이지만 분명히 가고 있었다.

“꼭 알고 싶어? 비결은 무슨 놈의 비결이야. 남들보다 조금 더 참고 걸으면 되지. 뭐” 이 말에 나는 그만 박장대소를 하고 그분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마치 곱게 들은 낙엽처럼 보였다. 사실 여러 회원들과 같이 등산을 해도 그분은 일행 중에 있으면서도 없는 듯하고(有若無) 차 있으면서도 텅빈 듯(實若虛)하고 남이 자기에게 잘못해도 따지고 다루지 않는다(犯而不校), 그런 분이였다.

요즘 친구들과 등산을 해보면 아직도 친구들 중에는 자기의 체력이나 경험을 과시하려고 우쭐거리거나 들출 행동을 하여 일행을 당황하게 만드는 경우가 더러 있다. 그런 친구들을 볼 때마다 백등회 회장 모습을 떠올려본다.

살며사랑하며

조 돈 만

제14회·연론인

마치 고요한 냇가에 낙엽이 흘러가듯 얌전한 듯 떠 있어 보어도 시나브로 흘러가고 있는 것과 흡사했다. 등산을 하다가 “회장님! 좀 쉬었다 가십시오”하고 젊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면 “쓰레기 주울 때 쉬어, 걱정 말고 어서들 가게” 한다. 일행과 떨어져서 패트병이나 휴지를 주워서 허리춤에 찬 빈 봉투에 담을 때마다 가쁜 호흡을 조정하는 것일까?

어느 월요일, 문수산을 조용하게 등산하다가 우연히 회장을 만나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던 중 “회장님, 그 연세에 산을 잘 타시는 비결이 무엇입니까?”하고 물었다.

물론 이날도 내 등산 가방에 준비되어 있는 막걸리 2봉과 사이다 1봉으로 2봉1반을 만들어 마셨다. 좀체 대답이 없어 다시 물었다.

백수 과로사(過勞死)란 말이 있듯이 백수들은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데는 많다. 초조하게 여기저기를 기웃거리고 옛날 생각만 하고 욕심을 내어 돌아다니는 분들도 있는 것 같다. 나도 백수가 되면서 초조하게 허둥댔던 적도 있었는데, 문수산에서 그 분을 만나고부터는 초조하게 서두는 걸 좀 자제할 수 있었다.

등산을 하다가 바쁘게 산을 내려가는 사람을 보고 “마누라가 기다려?”하고 그분은 묻는다. “회장님은 별로 기다리는 사람이 없이 좋겠어요.” “그래, 어느 누가 늙은 나를 기다리겠어? 그래도 날 변함없이 기다리고 있는 애인은 있어.” “네?” “염라대왕이야.” 이 말에 나는 그만 목이 메었다. 내장산의 곱게 들은 단풍처럼 그 분은 이미 곱게 들어 있었다.

부고 13회-경고 14회 친선 바둑대회

6월6일 졸업 46돌 맞아 '이웃사촌' 정 재확인

제14회서울회(회장 이현영)는 오는 6월6일 지난 1960년 같은 해에 졸업한 서울의 부산고 제13회 동문들과 졸업 46주년 기념 친선바둑대회를 열어 '이웃사촌'의 깊은 정을 재확인한다.

지난 4월27일 정오 제14회서울회 김영주 기우회장·박진 간사장·이광우 간사는 서초동 한정식집에서 부산고 반현수 기우회장·정승택 수석총무·조일남 총무와 만나 그 동안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교환했던 '경남고·부산고 친선바둑대회'일정을 합의했다.

이날 모임은 부산고의 반현수

기우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이날 양측은 대회운영계획안을 5월 중 양고 기우회 회원들이 만나 통과시키기로 했으며, 이를 계기로 당구와 등산 등 유쾌한 이벤트도 펼치기로 했다.

한편 양고 '협상단' 대표들은 협의를 마친 후 회식을 즐겼다.

특히 이 자리에는 중학교는 '경남', 고등학교는 '부산'을 졸업한 이대홍 동문이 합석해 분위기를 더욱 신나게 했다.

재경14회 새 회장 이현영

제14회서울회는 지난 3월14일



수석부회장(세영정형외과의원장·사진)을 선임했다.

김영치 회장이 주재한 총회는 42명이 참석, 결산보고(총 규모 5,700여만원)를 승인한 후 임원 개선에서 회장에 이어 수석부회장에 조연재 동문을 선임했다.

이이 김영치 직전회장과 재경동창회 장학회 이사장인 윤승홍 부회장을 고문으로 추대했다.

한편 이현영 신임회장은 간사장에 박진, 간사에 김영주·김용후·신기석·이광우·전병순·조정현 동문을 임명했다.

제20회동기회 집행부 명단

동기회장 김태선
고문 강석근
김대원
김형오
노기태
박병천
박용덕
설창환
신원기
심두수
이세형

이천규
장병호
장상배
정영화
정용환
차상곤
최장하
추준석
현희수
부회장 김두영
문광은

허남균
감사 김일석
박만옥
이사 강영환
김두찬
김상권
김태영
김한원
박영학

박옥양
박용호
박장대
박재인
박형준
송상현
오기현
우철성
유영걸

윤병규
이갑현
이실근
이종열
전일준
정병순
정승창
정해녕
조윤태
최병철
황영환

탁성식
표문배
총무 장춘식
재경지역회
재경회장 이맹기
재경총무 우성하
그외지역회
대전지역대표 김찬만
마산지역대표 강위수
울산지역대표 정상구

제6회 이길상 회장 연임



제6회 동기회는 지난 3월30일 오후 6시 사상 소재 파라곤호텔(상무이사: 배종권 동기)에서 이길상 회장의 주재로 '06 정기총회를 열었다.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총회는 결산보고와 예산안을 승인한 후 임원 개선에서 이 회장을 연임시켰다.

한편 올해 봄야유회는 5월 중 울산 바닷가에서 개최, 자연산 생선회를 싹껏 먹기로 했다.

제9회 신임 회장 신용익

제9회 동기회는 지난 4월25일 오후 6시 부전동 대립빌딩 뷔페월드에서 한동대 회장 주재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회장에 신용익 동문(사진)을 선출하였다. 최성욱 총무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30여 명이 참석, 결산보고와 예산안 승인 후 임원을 개선, 회장을 뽑고 부회장에 김영국 노도현 박희철 감사에 신도수 한동대 총무에 최성욱 동문(유임)을 각각 선임했다.

제14회 김용호 회장 유임

제14회 동기회 '06 정기총회 가 지난 4월17일 오후 7시 부산 중구 중앙동 무역회관 15층 뷔페 연회실에서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김용호 회장(용호선박 전무이사)과 김철언 조영봉 감사를 각각 유임시키는 등 집행부를 새로 구성했다.

신임 사무국장에는 김재도 동문이 임명됐다.

이날 총회는 특히 서울회에서 이현영 회장을 비롯해 박 진 간사장과 김용후 간사 등이 참석해

분위기가 더욱 고조되었다. 총회는 김 회장 개회사와 이현영 서울회장의 축사에 이어 결산·예산안을 통과한 후 임원을 개선했고, 김영대 전임회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경야회 신임회장 조흥기(22회)

경야회는 지난 3월7일 오후 7시 부산중구 부평동 구포집에서 '06 정기총회를 열어 신임회장에 조흥기 동문(22회)을 선임했다.

이웅규(22회) 회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는 3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결산보고와 예산안을 승인한 후 임원을 개선하고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상임고문=이길상(6회) △부회장=최영관(수석·25회) 황성동(24회) 김용희(28회) 박상국(33회) 정문종(35회) △감사=장성한(21회) 김동규(28회) △총무=이충원(수석·29회) 백홍분(33회) 신영석(40회)



"아, 얼마나 상쾌하고 즐거운가" 가덕도 연대봉 정상에 올라 포즈를 취한 제23회 용마가족들. 이들은 저 멀리 망망한 남해바다를 내려다보며 저마다 꿈이 이뤄지기를 소망하고 하산, 봄야유회를 즐겼다.

제23회 가족동반 가덕도서 야유회

제23회 동기회는 지난 4월23일 가덕도 일대에서 부부동반 봄맞이 야유회를 즐겼다.

전영조 회장이 주재한 이날 행사는 동문 34명과 부인 10명 등 모두 44명이 참석했다.

일행은 가덕도 선착장~연대봉~

대항포구~녹산 코스에서 산행과 관광을 하고 녹산 청아대빛집에서 단합회를 열었다.

제25회 신임 회장 송정규



제25회 동기회는 지난 3월28일 오후 7시 서면 유원오피스텔 터존 뷔페에서 '06 정기총회를 열어 신임 회장에 송정규(도선사·사진) 동문을 선임했다.

손기천 회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40여 명이 참석, 결산보고와 예산안을 통과한 후 임원을 개선했다. 송정규 신임회장은 손기천 직전회장과 이상화 동문에게 감사패를, 서클 회장들에게는 선물을 각각 전달했다. 여정조·옥동훈 총무는 유임시켰다.

제27회 신임 회장 이철



제27회 동기회는 지난 3월21일 오후 7시 중앙동 무역회관 뷔페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이철 동문(소아과의원장·사진)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김항열 회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40여 명이 참석, 결산보고와 예산안을 통과시킨 후 임원을 개선했고 지역 및 직능회의 활성화를 촉진키로 했다. 이 신임회장은 김경진 수석총무(에텐블링센터 전무)를 유임시켰다.

최근 여러 동기회들과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본부동창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환갑을 넘은 제1~19회 중에서 이를 개설한 동기회는 몇 안 된다. 이는 이용자가 많지 않고 관리 또한 쉽지 않기 때문일 게다.

한편 18회의 경우 2003년 10월 홈페이지를 개설한 이후 방문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도 점차 다양하고 아기자기해져가고 있다. 항목을 보면 웬만한 것은 다 있다.

무엇보다도 자랑스러운 것은 우리들이 순수 홈페이지를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그런 만큼 홈페이지운영은 물론 개선택업도 스스로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동기생 중에 컴퓨터도사 정기웅군이 있기 때문. 이 친구가 아니라면 우리 동기생들이 이런 호강(?)은 누릴 수 없을 것이다. 게다가 필자가 신문기자 출신이어서 동기회에서 벌어지는 갖가지 일들을 기사로 써서 홈페이지에 올림으로써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겠다.

최근 우리 동기회 홈페이지에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이승을 먼저 떠난 친구들의 명복을 비는 '사이버빈소'가 마련된 것이다.

제18회 홈페이지 '사이버빈소' 차려

'늙은 동기회'가 홈페이지를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일인데, 사이버빈소까지 차리다니 이는 분명 경이로운 일임에 틀림없다.

사이버빈소가 마련된 데는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부산에서 살고 있던 친구 김영수군이 지난 3월 서울 현대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을 거두



었는데 빈소가 워낙 멀어 필자를 비롯한 부산의 많은 친구들이 문상을 갈 수가 없었다.

더구나 그 친구는 우리 모두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터여서 안타까움은 더 컸다. 그러자 몇몇 동기생들이 "동기회 홈페이지에 사이버빈소를 차려 그곳에서 고인의 명복을 빌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컴퓨터도사는 즉각 작업을 벌였고, 지난 4월15일 마침내

'하늘나라 우체국'이 개설되었다. 슬픈 일이지만 올해 들어서만도 먼저 떠난 동기생이 벌써 5~6명에 이른다. 환갑을 넘어서면서부터 불귀의 객이 되는 친구들이 자꾸만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 사이버빈소를 만들어 생각날 때마다 돌려 고인의 명복을 비는 것이 이승에 남은 우리들의 도리가 아니겠는가.



이재일 제18회·언론인

필자는 곧 바로 사이버빈소를 찾아 먼저 타계한 친구들의 명복을 빌었다. 지난 1월 떠난 황정남군의 빈소 방문록에는 "무엇이 바빠서 먼저 우리 곁을 떠났는가. 하늘님은 또 왜 너처럼 착한 사람만 데려가시는지... 부디 '물 좋고 정자 좋은 곳'에서 편안히 새로운 삶을 누리시게."라고 썼다.

서울에서 유명한 달리한 김영수군의 빈소 방문록에도 글을 썼다. '빈소도 못

가보고... 명복이 없구나. 늦게나마 이곳에서 너의 명복을 빌어본다. 친구를 사랑하고 술을 좋아하고 언제나 올바른 말을 하던 자네. 그랬던 자네를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거야." 그리고나니 마음에 남아있던 부담감이 한결 덜어졌다.

이 나이에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것은 행운이면서도 행복이다. 내가 만약 넷맹이라면? 생각만 해도 아찔해진다. 고인이 되어버린 친구들의 사이버빈소를 찾아 명복을 빌 수 있는 실력(?)을 갖춘 것만도 큰 복(福)임에는 틀림없다.

동기생 중에는 인터넷을 할 줄 아는 노(老)티즌이 제법 많다.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사진은 물론 음악까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는 친구까지 있다. 기회가 있으면 "우리 노티즌들이 앞장서서 아직도 넷맹 친구들에게 인터넷을 가르쳐 주자"고 제의해볼 생각이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시점에서 친구들과 함께 인터넷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그야말로 재미있고 유익하면서도 멋진 일이 될 것이다.

우리 '18번지 친구들' 모두가 어엿한 노티즌이 되어서 인터넷을 하는 즐거움을 누리는 날이 언제나 오려는지...

제22회 동기회 집행부 명단

- 고문: 강봉기, 강성봉, 강운범, 구자룡, 김만성, 김영수, 김영진, 김원주, 김종수, 김학균, 김도살, 박성열, 박언표, 박재상, 우덕현
- 유재진, 이대선, 이상협, 이성모, 이성철, 이인준, 장영근, 황영환, 허인석, 김동욱, 조순태, 김일봉, 김일준, 김진영, 노세현
- 명예회장: 김동욱, 회장: 조순태, 부회장: 김일봉

- 박승목, 변대석, 변종호, 안진환, 이철웅, 장무성, 정상수, 조봉국, 주우실, 최일용, 한태길
- 이사: 강호일, 강화목, 권상준, 금명환, 김동원, 김명수, 김성재, 김순협, 김승일, 김영철, 김철호

- 박홍식, 배춘식, 서영훈, 손병우, 손봉용, 손용섭, 유명운, 이문성, 이웅규, 이정식, 이치백, 임성규, 정갑열, 최우현, 최학봉
- 한군백, 한창길, 허효영, 김병수
- 직능회 회장: 돌돌산우회장 김성재, 돌돌기우회장 최일용, 돌돌남시회장 손용섭, 돌돌골프회장 김일준
- 총무단: 재무이사 정도인, 총무이사 조흥기, 기획이사 손용섭

**“정력 아직도 분출중”
재경 경팔회 견재과사**

재경 경팔회(회장 김동훈) 각 클럽들은 “정력 야호!”를 외치며 견재를 과사하고 있다.

빈대떡·홍합도 관악산 동경

산우회(회장 김영철)는 4월 28일 수락산을 비롯해 21일 도봉산(11명), 14일 북한산(12명), 7일 관악산(11명)을 올랐다.

경열회 친목회 오순도순

경열회 각 친목회 5월 모임이 성황을 이뤘다.

일금회(회장 손정)는 26일 오후 6시 일산 지하철 주벽역 근처 마라도에서, 강남회(회장 김해룡)는 23일 오후 12시30분 지하철 교대역 근처 기왓집순두부에서, 분당회(회장 김연수)는 20일 오후 6시 지하철 서현역 근처 기왓집순두부에서 각각 정례회를 열었다.

골프대회 우승 고무웅

경록회(회장 이정배)는 25일 정오 자유CC에서, 사니조아(회장 이계창)는 21일 불암산과 13일 관악산에서 정우회(회장 정상수)는 평촌중앙공원 테니스장에서 각각 심신을 단련했다.

경록회 4월 대회는 우승 고무웅·메달리스트 김상태·준우승 이근태·3위 조상진·장타상 김창덕(240야드)·근접상 최성열(3.5피트)·행운상 차동열 동문이 차지.

산본회(회장 윤영태)는 9일 오후 12시30분 지하철 산본역 E랜드 옆 이어수산에서, 동수회(회장 김영덕)는 2일 오후 자스민기원에서, 강북회(회장 강재환)는 같은날 오후 12시30분 평래옥에서 만났다.

바둑우승 최대영 출석도 1위

팔선회(회장 이유환)는 지난 5월 19일 오후 2시 한일기원에서 정례대국을 열었다.

한편 4월 21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대국에서는 우승 최대영·준우승 전영배·감투상 이종수 동분이 차지했다.

이날 우승을 한 최대영 동분은 출석도 1위를 마크, 모범을 보였다.

146차 골프대회 지창수 우승

지난 5월 15일 오후 1시10분부터 기흥CC 등-남코스에서 라운딩을 벌였다.

한편 4월 17일 기흥CC 열린 제 146차 월례회 남자부는 우승 지창수·준우승 이유환·3등 배주원·니어리스트상 윤태영·행운상 조운제 동분이, 여자부는 정종옥씨가 니어리스트상을 각각 차지했다.



**박인국(25회)
외통부 외교정책실장 영진**



박인국(25회·사진) 동분은 최근 외교통상부 외교정책실장으로 영진했다.

서울대 증분학과를 졸업한 박동분은 지난 1978년 외무고시에 합격한 이래 장관 보좌관·청와대 국제안보 비서관·주 쿠웨이트 대사·주 제네바 차석대사·제네바군축회의 의장 등을 역임했다.

모교 개교64돌 기념식

경남고는 4월 28일 오후 3시 체육관에서 개교 64주년 기념식(사진)을 거행했다. 권영미 교장을 비롯한 교직원과 재학생, 안강태 본부 회장(11회·대전조선 대표이사)과 허홍욱(19회) 사무국장 겸 학교운영위원장, 운영위원 등 1,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안 본부회장은 장기근속 전출교사 14명에게 선물을 증정했다. 한편 경남중은 29일 김철곤 교장(16회) 주재로 개교 기념식을 가졌다.

**박봉흠(21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박봉흠 동분(21회·사진)은 최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에 발탁됐다.

서울대 상학과를 졸업한 박 동분은 행정고시(13회)에 합격한 후 공직생활을 시작, 재정경제부 예산실장·차관·기획예산처 장관·청와대 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87년 미국 듀크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은 박 동분은 건강 때문에 청와대를 떠난 지 2년 만에 관계에 복귀했다.

**허범도(22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허범도 동분(22회·사진)은 최근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선임됐다.

부산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허 동분은 행정고시(17회)에 합격,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래 부산-울산 중소기업청장·경기지역중소기업청장·산자부 차관보·산자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

바로잡습니다.

본보 제359호 7면 ‘이디서 무엇’ 중 제17회 姜宇勳 동분은 강정일 동분으로, 錢洸=동방명리학연수원장은 동방명리학연 구원장으로 바로잡습니다.



제33회 동문·가족들이 임광산을 등정한 후 새로운 추억을 렌즈 속에 담고 있다.

**제33회 용마가족
58명 임광산 올라**

제33회동기회는 지난 4월 30일 부산 서구 소재 임광산 일대에서 춘계 가족등반대회를 가졌다. 동문·가족 58명은 이날 오전 10시 모교 등나무 밑에서 집결, 기념촬영을 하고 산행을 시작하여 봉수대-제1,2 헬기장-임광산 정상-꽃마을의 코스를 밟았다.

꽃마을 내 일동이네집에서 증식 겸 뒤풀이를 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윤조 회장을 비롯하여 고분단과 집행부, 민병현 등 산우회원, 공진우 등 마·창 동문들, 박상국 등 삼승회원 등 각 지역·직능·취미 클럽 회원들이 골고루 참석하여 모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가운데 결속과 화합을 과시했다.

14K ‘회춘’의 봄철산행 만끽

봉래산·임광산·남암산 등정

제14회동기회 부산산악회는 4월 16일 김재도 신형대장 등 동문 10명과 비회원 5명은 민주공원~구봉산~임광산(504m)~꽃동네~시악산~승학산 코스에서 자물산행(307차)대회를, 2일에는 박효건 등 동문 9명과 비회원 3명이 영도 봉래산을 등정

(306차)했다. 이날 코스는 대흥사~다보사~체육공원~조봉(396m)~자봉~손봉~목장원~해변 산책로~중산리~자갈마당. 한편 3월 19일 울산 남암산(543m)자물산행은 전부길-황영옥커플 등 10명이 참가했다. 코스는 부산 지하철 노포동역~대북마을~마당재~정상(전심식사)~대북마을 등 원점회귀.

재경 청계산대회 2등 차지

서울의 14K산악회는 4월 23일 청계산 이수봉(545m) 일원에서 열린 재경동창회(회장 홍용찬·16회) 주최 등산의 날 행사에 이현영 회장 등 42명이 참석, 4명이 모자라 아쉽게도 제 17회에 최다참가상을 넘기고 2위에 머물렀다.

한편 3월 산행대회는 42명이 25~26일 전남 광양~구례~경

남 하동을 순례했다.

첫날은 전남 광양군 다압면 섬진강변 대화마을을 거쳐 구례에서 산동마을의 산수유축제를 즐긴 후 고묘의 수액을 마시며 하룻밤을 지냈다.

이튿날은 경남 하동으로 들어와 쌍계사까지 뺀은 십리벚꽃길~불일폭포~박경리 대하소설 <토지>의 주무대인 토지분화관(하동 약안면 평사리)~청학동을 관광하고 밤 늦게 귀경했다.

제27회동기회 임원 명단

고 문
김원대 김용태
김태우 김현수
문두찬 박명준
임기대 장기남
조용수 한명철

직전회장 김황열
회 장 이 철
수석부회장 이태주
부 회 장 윤정환 박치호

감 사 박현호 조민제
이 사 강봉호 강영건
권명보 김병호
김대용 김안석
김용섭 김정희

박찬석 박규욱
방문성 배병호
백민호 신한원
송인무 윤지한
이봉춘 이상열
이양현 이형복
임용한 장인철
전창민 정광모

정민화 최경룡
최명권 최휴진
태기섭 한수길
허 한 황호경
수석총무 김경진

지역·직능회

- 해운대구회 회장 김태우·총무 백민호
- 동래·금정구회 회장 이봉춘·총무 김상중
- 서·사하구회 회장 박찬석·총무 윤지한
- 야구회 회장 박찬석·총무 배기용

- 골프회 회장 윤정환·총무 김정희

- 등산회 회장 강봉호·총무 방문성
- 기우회 회장 정민화·총무 김경진

- 금달포 회장 이형복·총무 백민호
- 토색모 회장 문두찬·총무 허 한

제 7 외

文昌潤=5월9일 지병으로 별세

제 8 외

李相軾=(자택 이사)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314번지 성우아파트 401호. 016-329-8051

제 10 외

金靈燁=5월 27일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호텔 3층 다이아몬드 볼룸에서 장남 상현군 결혼 박경수=서울시 성북구 삼전동 5가 100-3번지. 011-9860-5613

徐昌錫=(자택 이사)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484 현대아파트 307동 1803호

元容玟=(자택 이사)서울시 강남구 역삼2동 754-1 대우푸르지오 108동 1002호

李彦喜=부산시 서구 서대신동2가 408-8번지. 010-3050-6629

張仁睦=(자택 이사)부산시 중구 부평동4가 36-2번지. 016-9609-3141

趙鏞琪=(자택 이사)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경동아파트 103동 404호. 011-550-9953

제 13 외

姜秀敏=4월29일 파라다이스호텔에서 딸 결혼

金相漢=4월 8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아들 결혼

宋英錫=4월16일 모친 별세

俞守鍾=6월11일 부산북화예식장에서 아들 결혼

李永鉉=4월15일 부산예식장에서 아들 결혼

李源羽=5월 14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 3층 거문고B,C홀에서 장남 재영군 결혼. 011-9931-2872

李幸夫=4월 16일 모친 별세. 011-253-5029

鄭文和=5월7일 미국 보스턴에서 딸 윤경양 결혼. 011-305-6361

조용대=5월7일 별세. 02-2238-8552

崔東煥=5월1일 모친 별세. 02-542-7060

崔永琬=삼창기업(주) 고문. 031-454-0618 · 011-229-1090

제 14 외

姜大銀=지난해 12월 대한민국 특허기술대전에서 음식쓰레기 처리기계로 동상 수상(가정용 음식물쓰레기를 응축식으로 탈취 건조시키는 신공법). 010-3819-9915

朴 津=5월12일 서울 장충동 소피텔엠버서더 2층 그랜드볼룸에서 장남 재형군 결혼

孫永牧=서경대학교 과학교육대학 명예교수.

4월15일 (사)한국민물고기보존협회 회장 취임.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5-1 빅토리아빌딩 614호. 02-554-5154

李文燦=5월7일 서울 여의도웨딩홀 6층에서 장남 한석군 결혼

朴炳善=본부 부회장·신흥모직 대표. 5월17일 모친 별세

李浩一=(자택 이사)부산시 사하구 장림2동 40-5번지 한빛빌라나동 303호

제 15 외

金良定=4월15일 모친 별세

金正吉=4월8일 모친 별세

徐正旭=울산지역동창회 감사. 3월29일 제43차 정기총회에서 공로패를 수여받음

沈揆東=4월9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장남 경용군이 정창환 동문의 장녀 재원양을 배필로 맞아 결혼

李純求=(자택 이사) 부산시 북구 화명3동 2037번지 현대2차아파트 208동 304호

어디서 무엇을

李昌一=4월15일 서울 교통문화교육원 웨딩홀에서 장녀 진영양 결혼

蔣允石=5월14일 서울 삼성분관 지하1층 국제회의실에서 차남 경호군 결혼

鄭昌煥=4월9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장녀 재원양이 심규 등 동문의 장남 경용군을 배필로 맞아 결혼

제 17 외

강정일=두레친환경농업연구소 소장

錢 洸=동방명리학연구원장

제 18 외

高正大=지난해 10월9일 서울 삼정 호텔에서 장남 동현군 결혼

金吉帝=6월 3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장남 종석군 결혼

金德根=1월14일 부산 웨스턴조선비치호텔에서 장남 하나군 결혼

金明朝=지난해 12월 25일 부산예식장에서 장녀 민정양 결혼

金永秀=3월11일 별세

金榮泰=지난해 9월3일 부산 국제신문사 대강당에서 차남 민석군 결혼

金元泰=1월7일 부산 새마당예식장에서 차남상현군 결혼

金正來=지난해 11월1일 부친 별세

金洪柱=지난해 12월1일 별세

金熙重=5월13일 부산 그랜드호텔에서 장녀 옥선양 결혼

羅正憲=3월4일 부산 해운대로

드비치호텔에서 차녀 경인양 결혼

朴大雄=4월16일 부산 크라운호텔에서 차남진철군 결혼

朴鍾淳=4월14일 모친 별세

安昌範=5월20일 부산 BEXCO 정상회담장에서 차녀 연희양 결혼

陽東健=3월25일 서울 양재동 외교안보연구원에서 장녀 회정양 결혼

梁龍吉=지난해 12월24일 부산 올림픽예식장 3층에서 아들 준호군 결혼

吳基贊=4월29일 별세

陸炳奎=1월8일 부산 농심호텔에서 차남 상현군 결혼

李星白=3월30일 별세

李點岩=1월28일 모친 별세

李炯學=지난해 9월 25일 모친 별세

池文碩=4월15일 부친 별세

秋昌根=지난해 11월5일 부산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장녀 정화양 결혼

河斗錫=지난해 9월 24일 부산 한국전력공사 대강당에서 차녀 지원양 결혼

黃吉輝=4월21일 부산 농심호텔에서 장녀 인원양 결혼

黃正男=1월16일 별세

제 19 외

姜永範=(주)협성검정 상무이사에서 (주)협성해운 상무이사로 전보. 011-852-8280

桂應燦=3월21일 모친상

金光旭=3월2일 동주여자중학교 교장 취임. 019-250-0958

金東奎=2월25일 부산 범일동 KT웨딩홀에서 딸 결혼. 016-9611-1098

金奉鎬=4월29일 부산 해운대 조선비치호텔에서 아들 결혼. 051-831-3101~4

金石九=사하경찰서장에서 해운대경찰서장으로 전보. 011-887-9126

金哲浩=동래백병원 병원장(소

아과. 011-563-4790

文官珍=(주)인선설계 부회장. 019-570-0318

朴 逸=3월4일 딸 결혼. 018-560-3802

朴相植=(주)동방전무이사 부산 지사장. 011-508-9978

尹永奎=우양냉장(주) 부사장. 016-445-7213

李鍾明=한국신급협회 일본주재. 4월16일 부산 범일동 웨딩홀에서 딸 결혼. 016-597-0548

제 20 외

閔永基=부산상공회의소 사무처장. 3월25일 부산 조선호텔에서 딸 지영양 결혼

薛勝龍=설승용이비인후과의원장. 4월23일 부산 남천성당에서 아들 광석군 결혼

鄭圭植=정규식피부비뇨기과의원장. 4월23일 대전에서 아들 성원군 결혼

鄭洋禹=4월9일 부산 범일동 KT예식장에서 아들 철민군 결혼. 016-561-6960

제 21 외

金貴經=5월 13일 장남 결혼. 011-271-4906

金顯奎=4월 25일 부친 별세. 017-225-6733

金亨東=동아대 의대 교수. 5월 21일 장녀 결혼. 019-662-5241

朴純洋=5월 21일 장녀 결혼. 016-595-6058

朴鉉斗=부산신용보증재단 사무국장. 5월3일 모친 별세. 051-831-1179 · 017-550-4111

禹鍾得=5월 13일 장남 결혼. 010-7506-0311

李東春=축협사료 대표이사. 경남 의령군 소재. 055-573-6321 · 011-886-0865

徐炳文=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장. 5월7일 장남 결혼. 02-2166-2000 · 011-711-8701

成潤洙=5월13일 장녀 결혼. 011-9159-4955

張星漢=5월 21일 차남 결혼. 017-292-7389

許弼鳳=5월5일 장녀 결혼. 010-7138-7663

제 23 외

金益坤=김익곤정형외과 개업. 부산시 영도구 대교동 모닝아일랜드 4층. 051-417-3800

金眞燁=새군산중전소. 전북 군산시 미장동에 소재. 011-480-1100

朴守甲=부산노무사 · 23동기회

산우회장. 051-466-4111

梁熙澤=양희택치과원장. 부산시 수영구 광안전철역 입구에 위치. 051-753-1454

玉致範=옥치과원장. 부산시 연제구 거제동 국제신문빌딩 1층. 051-504-3111

田尙大=해동환경(주) 대표이사. 051-702-1201

崔 升=동기견인운수대표. 051-311-7551

제 25 외

李水榮=미래다습치과의원장. (병원 이전)부산시 동래구 온천2

어디서 무엇을

동 지하철 동래역 이센타워 11층. 051-557-3868~71

제 28 외

李京抱=이조명과. 부산시 서구 제1선거구(등대신동, 부민동, 부용동)에서 한나라당 공천으로 기초의원 출마. (선거사무실)051-256-6212

이정기=한국신급협회 여수지부장에서 대전본부 등록선 정보팀장으로 발령. 042-869-9303

韓基雄=동부화재 서면지점장을 용퇴하고 손해보험 전문법인(주)구디스 설립. 부산시 부산진구 범천1동 862-1번지 알리안츠빌딩 소재. 051-636-9322

제 30 외

金光浩=삼성화재 플코스 대리점. 051-853-3258 · 011-865-9521

愼珖培=재진해정형외과. 경남

진해시 석동 소재. 055-544-2010

徐在元=대교횡집 개업. 부산 광안리 소재. 051-751-0388

劉賢德=중앙 U병원 병원장 취임. 051-293-7766

李建雨=우리성모병원 개원. 경기도 시흥시 소재. 031-311-0700 · 016-751-6661

鄭 光=EBS 출판(고등학교 참고서). 011-9972-7226

河奎良=(주)A&T 설립.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 606-4 안락타운 2층. 051-522-0088.

6월 25일 본부 용마바둑대회

용마바둑회 정기총회... 강수경 회장(21회) 등 임원 유임

▽ 작년 용마바둑대회 대국 모습

본부 용마바둑회는 지난 5월 11일 오후 7시 부산 동래구 사직동 소재 백향에서 2006년 정기총회를 열어 제6회 동창회장기 정탈 용마바둑대회(단체전)를 오는 6월 25일 부산 중구 중앙동 봉운빌딩 6층 중앙바둑센터에서 개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운영계획안을 확정했다.

출장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강수경(21회·DSG대동텔레이퍼상무이사) 회장 대신 한병조(13회) 고분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30여 명이 참석, 결산보고와 예산안을 승인했고 강수경 회장을 비롯해 임원 전원을 유임시켰다.

특히 총회는 올해 중점사업으로 타고외의 친선바둑교류전을



추진하고 집행부 규모 확대와 활성화에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통과된 제6회 용마바둑대회(단체전) 운영계획안에 따르면, 대국방식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로 스위스리그전으로 펼치고, 청·장·중년의 각 부별 우승은 총 3차전(작년 4차전)을 펴 결정키로 했다.



가족 동반 봄철단합회 '신바람'

본부 경총회, 족구대회·노래자랑으로 화합 재충전

본부동창회 총무협의회(약칭 경총회)는 지난 5월 14일 부산 강서구 명지동 강변공원에서 가족 동반 봄철 단합대회(사진)를 열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경진(27회) 회장 주재로 열린 행사는 소속 동기회와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총무들과 가족 등 50여 명이 참석, 즐겁고 유쾌한 시간을 보냈다.

이날 제1부 기념식은 김 회장 인사, 허홍욱(19회) 본부 사무국장 격려사, 이봉주 4회 총무 축

사, 신입 총무 인사 등으로 진행됐다.

제2부 화합한마당은 소갈비·삼겹살·생선회 등 다채로운 먹

거리와 도시락으로 점심식사를 한 후 족구대회·노래자랑으로 결속력을 과시했다.

신임회장 김경진(27회), 선임



한편 본부 총무협의회는 앞서 지난 3월 17일 오후 6시 30분 부산 중구 부령동 구포집에서 '06정기총회를 열어 신임회장에 김경진 수석부회장(27회·사진)을 선임했다.

권오근 회장(21회)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40여 명이 참석, 결산보고와 예산안을 승인한 후 임원

을 개선, 집행부틀새로 구성했다.

△부회장=김성희(28회)

△간사장=김형수(32회)

浮石寺 부석사

김삿갓

平生未暇踏名區 - 평생에 여가 없어 이름난 곳 못 갔더니
白首今登安養樓 - 백수가 된 오늘에야 안양루에 올랐구나
江山似畫東南列 - 그림 같은 강산은 동남으로 벌려 있고
天地如萍日夜浮 - 천지는 부평 같아 밤낮으로 떠 있구나

소외노인에 무료급식 5개월째

가족은 물론 사회로부터 소외된 채 끼니마저 거르며 사는 노인들에게 무료급식을 몇 달째 봉사하고 있는 용마가족들이 있어 화제다. 주인공은 칠순을 눈앞에 둔 제13회동기회 경덕회(慶德會) 회원들. 이들은 '사람이 꽃보다 더 아름답다'를 실천하는 이웃사랑의 귀감이다.

한병조 동문 앞장 제13회 경덕회 회원들 봉사 용두산공원서 한 차례 최다 500명까지 보살피

지난 5월 20일 정오 용두산공원, 500명 안팎으로 추정되는 노



인들이 점심식사를 맛있게 하고 있었다. 이들은 앞서 오전 10시부터 삼삼오오 모여들이 자리잡기에 분주했다. 경덕회 회원들을 비롯해 부인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주 이웃아주머니들까지 총동원돼 급식봉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피곤해도 얼굴에는 땀과 웃음이 떠날질 않았다. 아직은 자원조달이 여의치 않아 매월 한 차례에 불과한 무료급식이지만 보람은 크다.

경덕회가 이 같은 덕행(德行)을 베풀기 시작한 것은 지난 1월부터 본부동창회 부회장과 사무국장을 역임한 한병조 동문(법무사·본부 용마바둑회 고분·사진)이 가족과 함께 무료급식을 단행한 게 계기가 되었다.

이후 소문을 들은 경덕회의 김향운 동문(전 경남고 교장)을 비롯해 김수일 김성은 박

종택 오한수 유수종 신민철 정영화 최태환 등 회원들이 합세함에 따라 봉사의 위력은 일약 맹위(?)를 떨쳤다.

이처럼 끼니를 거르는 노인들과 홀리스들에게 베풀고 있는 무료급식봉사는 어느덧 5개월째다. 경덕회 회원들의 헌신은 이들에게 끼니 걱정을 덜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삶의 희망을 심어줘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작은 보탬'이 되고자 하는 데 있다.

분제는 자원조달 회원들은 각자 모아둔 용돈을 회사하지만 수백명을 먹이기에는 태부족이다. 하지만 '궁하면 통한다' 했던가. 자신들도 노인이면서 어려운 노인들을 더 사랑하는 이들은 봉사하는 기쁨과 보람을 쌓고 건강도 다스리겠다는 일념이다.

한병조 동문은 "지금은 재원이 부족해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많지만 무료급식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며 "이 좋은 일에 많은 용마가족들이 성원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울산지역동창회 임원 명단

회장		이사		사무국장		직장·직능회	
박홍조 (22회)	김상희 (4회)	권정덕 (19회)	김광경 (33회)	권기택 (28회)	경문회		회장 김우성 (8회)
부회장	김성출 (5회)	강경수 (20회)	김종식 (34회)	사무차장 정진국 (30회)	울산대학교회		회장 김영홍 (13회)
조장래 (23회)	변봉규 (7회)	권영순 (21회)	임성배 (35회)	수석총무 김종식 (34회)	현대중공업회		회장 신태식 (25회)
김현태 (24회)	김상식 (8회)	오세길 (22회)	허종균 (36회)	총무 허종균 (36회)	현대자동차회		회장 이인광 (32회)
박동진 (25회)	유병철 (9회)	여은호 (23회)	이승열 (37회)	배병오 (38회)	용마기우회		회장 권정덕 (19회)
전학명 (28회)	김성규 (10회)	이우영 (24회)	김기현 (38회)	진조석 (39회)	용마야구단		회장 이문희 (23회)
왕도성 (29회)	최형욱 (11회)	박점용 (25회)	진조석 (39회)	김세연 (42회)			
이진걸 (30회)	최병준 (12회)	민창현 (26회)	최 현 (40회)	추세경 (44회)			
박성구 (32회)	성정호 (13회)	서기룡 (27회)	이성기 (41회)	이 현 (44회)			
이순환 (33회)	강호일 (14회)	최성덕 (28회)	김세연 (42회)	강병국 (47회)			
감사	서정욱 (15회)	김철수 (29회)	박남기 (43회)	전익환 (50회)			
서정욱 (15회)	김무웅 (16회)	박원호 (30회)	이 현 (44회)				
김인렬 (29회)	김정은 (17회)	박해성 (31회)	강병국 (47회)				
	박덕봉 (18회)	박성구 (32회)	전익환 (50회)				